

Robert Yarbrough 박사, 목회서신, 세션 9, 디모데후서 2:1-21

© 2024 로버트 야브로(Robert Yarbrough)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목회 서신,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에 대해 강의하는 로버트 W. 야브로 박사(Dr. Robert W. Yarbrough)입니다. 9회, 디모데후서 2:1-21.

우리는 목회 서신,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지침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들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NIV에서 여러분은 2장에 대한 두 개의 제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새로운 호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매력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거짓 교사 다루기라는 제목의 3장으로 이어지는 긴 섹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마도 2장 끝에서 멈추고 3장에서 거짓 교사들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2장 1절을 읽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강하여졌느니라.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서 이 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강의를 듣거나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도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당신을 향한 헌신에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력을 넘어서,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인도하시는 일을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 아들 디모데를 부르면서 인사하는 것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를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애정 어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빨간색이에요.

강해지세요(Be Strong)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명령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강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강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택의지를 강조할 것입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내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강화하시는 데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서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볼 때, 우리는 디모데와 관련된 도표를 가지고 있었고, 신약성서에서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거의 모든 편지에서 목회자 외에 디모데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편지가 세 군데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편지에서 그들은 바울의 편지이지만 그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디모데 또는 바울, 실라, 디모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서 들은 것들을 말할 때 그가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시할 때 디모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말하는 내용 중 일부를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디모데가 있었고 바울이 날마다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12명이 3년에 걸쳐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들음으로써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디모데도 바울이 말한 것을 반복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호소입니다. 섹션은 항소가 갱신되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힘을 내고 바울의 말을 들은 것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거나 자격을 갖추도록 그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제, 이 디모데전서 2장은 일부 사역의 기초가 되는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은 제자도의 역학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스스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하지만 단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이 그것을 충실하게 행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제자도의 사슬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목회서신에서 교회성장 철학에 있어서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별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도 명령을 실천하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고통을 겪으세요. 당신이 대도시 어딘가에 살고 있다면 시골에 나가서 언젠가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풀은 사형수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같으리라.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사사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지휘관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기하는 사람도 규칙에 따라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작물의 첫 몫을 받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농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당신에게 통찰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관찰이 있습니다. 우선, 은혜는 수동성이 아닌 힘과 실패에 대한 만족감을 붙여넣습니다. 때때로, 적어도 제가 경험한 환경에서는 은혜가 찬양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무료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름, 수동성, 심지어는 죄성을 변명함으로써 은혜를 남용해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나는 한 예배 인도자가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글쎄, 그 진술의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어떤 예배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구절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불의.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물은 결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헌금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용서하심으로 축복하십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는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누가 죄를 지는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의 성격에 이질적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결과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사야는 6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한 모습을 봅니다. 또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는 사역 초기에도 예수님 안에 초월적인 뭔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여, 나에게서 떠나가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인에게 용서를 베푸시더라도 하나님과 죄 사이에는 우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를 약화시키거나 표준을 낮추거나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본성입니다.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했듯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야 합니까? 아니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은혜는 힘을 붙여넣습니다.

둘째, 목회사역은 가장 기본적인 제자도사역이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 이미 언급했고, 어제 또 언급했습니다. 북미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는 좋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아주 잘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그다지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훌륭합니다. 일부 교회는 매우 예배식적이어서 다소 침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등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일반적인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콘서트에 가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음악이 있고, 어쩌면 매우 숙련된 음악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 자신의 음악을 작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마도 특정 수준에 맞게 옷을 입는 것, 특정 인구통계와 함께 있고 특정 음악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악이 쌓이고 점점 더 행복해지며 손을 높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좋긴 한데,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라면,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무엇을 축하하는 걸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축하하고 있나요? 우리는 공허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면 천사들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속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쁨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일, 매주, 해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며 좋은 음악, 특히 안전한 음악을 좋아합니다. 정규 콘서트처럼 교회에서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면 마리화나 담배를 피우거나 마약에 중독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안전하고,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선적일 수 있다.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다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콘서트를 하고 나의 기쁨을 느껴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허용되지만 그것이 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식별하는 것이라면 핵심은 썩은 것입니다. 목회사역은 제자도사사역의 가장 기본이고, 목회자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많은 사회 계층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다른 계층에 대해 언급합니다. 목회 봉사에는 장상에 대한 극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즉, 군인 이미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군인은 민간인 문제에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일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지휘관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며, 나는 그 극도의 헌신을 상관에 대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주님께 극도의 헌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의 주된 충성심은 지휘관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의 희망이 있고, 힘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지휘관을 속이고 우리가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일에 더 많이 관여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며 우리 지휘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운동선수입니다. 그는 규칙에 따라 경쟁하지 않고는 승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영광의 땅 구석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서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들을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관심과 온전한 노력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수개월, 수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벽한 기독교 교회나 가정 출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1세대이고, 기독교 신앙이 실제로 실천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결혼 생활을 끔찍하게 여겼던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도 결혼 생활이 끔찍했던 누군가와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결혼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롤 모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결혼, 관계에 대한 만족을 찾기 시작하는 데는 아마도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자의 왕관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글썄요,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지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감미로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봉사와 제자도 정체성 사이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는 발명하지 않지만 발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운동경기에는 규칙이 있고, 규칙에 따라 경쟁하지 않으면 왕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인도와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교훈에 일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을 받을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는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

열심히 일하는 농부. 당신이 세상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에 따라, 이것에 대해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농장 생활을 낭만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선한 공기, 소, 꽃, 초원 등을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물의.

하지만 당신이 제 조부모님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제 부모님은 다섯 명의 자녀를 두셨고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매년 여름마다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별로 크지 않은 80에이커 규모의 농장으로 보내졌고, 할아버지는 말 두 마리를 키우며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어떤 종교 단체에 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내부에 화장실이 없었고 매일 거의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조부모님이 생계형 농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돈을 벌었고 매년 세금을 내기 위해 돼지 두 마리를 팔았습니다.

그들은 돼지 몇 마리를 키웠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세금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에 그곳에 가기 시작했을 때는 겨우 50대 후반이었는데, 고된 노동으로 인해 관절염으로 몸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얇은 옷을 입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발과 관절이 너무 부어서 일반 신발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헐렁한 고무 장화를 신었고 양말은 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발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갈 때 물갈퀴가 달린 가죽과 같은 샌들을 신었는데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버클을 채우지 마세요. 그의 발이 너무 부어있거든요.

따라서 고대 세계에서는 에어컨이 설치된 택시를 타고 트랙터를 타고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는 힘들었고, 농사는 수익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부로서 당신은 항상 굶어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농작물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는다면 겨울이 오면 무엇을 먹을 것이었습니까? 이것이 목사님의 이미지입니다.

목사님이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경작하고 계십니다. 그는 밭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든 일이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요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건해지는 모습입니다. 나와 함께 고통에 참여하십시오. 그 군인처럼 되십시오.

그 운동선수처럼 되세요. 그 농부처럼 되세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티모시.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는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찰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의견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의 유혹 중 하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James가 설명했듯이 그것은 거울을 본 다음 떠나고 나면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에 기름기가 잔뜩 묻었다면, 눈을 떴을 때 천을 들고 얼굴을 닦아내듯이 닦아주세요. 글썄요, 얼굴에 기름이 묻었다가 잊어버리고 떠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몇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몇 가지 아이디어를 생성한 다음 떠나고 실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이것의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흔한 단어는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장은 8절에서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순서로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첫 번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안을 하겠으나 그것은 이 구절의 다른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사형수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디모데에게 당신이 고통받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도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로 인해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제 나는 이것이 적어도 그들의 공통 민족성에 대한 잠재의식적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죽임을 당하셨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계보적 현실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승천하셨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나도 그러합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는 매우 유대인적인 이름이거나 매우 히브리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은 그가 예수의 유대인성,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자손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물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처형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은 나의 좋은 소식입니다. 나의 유양겔리온. 그 때문에 내가 죄인처럼 결박될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범죄자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메신저. 그러므로 나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개인들을 선택하시는 것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시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사람들을 일으키심으로써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 그가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선택의 사역이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그들 중 하나라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정상적인 질서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영원한 영광이 있느니라 그로 용서함을 받고 영광의 소망을 알게 하려고 고난을 받은 이가 있으니 특별히 예수이시니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견디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그가 디모데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섹션에서 항소가 갱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디모데에게 크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간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호소입니다.

티모시,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결과는 호의적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이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이 있습니다. 내 말은, 예수님을 위해 불길 속으로 내려가는 것,

충성심으로 내려가는 것, 용기와 두려움 속에서 내려가는 것, 그러나 충실함을 유지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광이 있고, 실제적이고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몸이 있으며, 바울이 이사야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을 만한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고, 디도서에서도 한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길고 확장되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말이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4개의 if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표현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세례, 부활을 통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해 이야기하는 로마서 6장의 언어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메시지에 동의하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라고 말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당신이 죽으셨을 때 내 죄가 처리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디모데처럼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헌신한다면, 적어도 그에게 안수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의 원리, 영생, 그것이 현재의 품질이요, 그것이 장래의 양과 품질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확실합니다. 버티면 이것도 안심이지만 좀 더 불확실하다. 우리가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종말론적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이생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생에서 특정한 위협을 극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종류의 도전과 일종의 자신감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두 가지가 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논란의 여지가 적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내 몸을 찢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통치가 충분하다는 점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폴은 자신이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 르크스(sarx)라고 부르는데 ,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고 싶어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사람들의 모든 목회 서한을 통해 예를 봅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데마처럼 바울의 조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데마는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사도들의 동역자 같았는데 데마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디모데에게 그가 느낄 수 있는 유혹을 자백하고 주님께 대한 그의 헌신을 단축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축복하신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에 대한 성경의 모든 예를 기억하십시오 .

우리는 유다나 사울 왕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안의 일부는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 깨닫는 데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따라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피와 의 위에 세워졌습니다.

나는 감히 가장 감미로운 프레임도 신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정말 멋진 노래지만 부르기 쉽고 진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말하는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므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확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제가 즐겨 읽는 방식입니다. 즉,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는 세 번째 질문은 확실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if는 좀 더 미묘하지만 훨씬 더 부정적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니 신명기의 저주와 축복의 구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과 같습니다.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현명한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12절 끝에서 그를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날카롭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음, 당신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나는 유다야, 네가 행한 모든 좋은 일을 기억한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돈을 좀 훔쳤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부된 돈의 약 90%, 9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했습니다. 그것은 별과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러다가 2~3일 정도 지나면 2~3일은 나쁜 날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와 함께 있었고 결코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그 가정에 따르면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우리에게 안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설교 방식의 변화하는 패턴에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내 생애 동안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과 부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온갖 종류의 이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의 진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려면 이 중 그다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독일의 유명한 학자 아이텔 린네만(Eitel Linnemann)이 있습니다.

그녀는 20세기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서학자 루돌프 볼트만의 제자였다. 그리고 수년 동안 회의적인 전통에 따라 훈련을 받은 그녀는 독일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학생들에게 복음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일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물었을 때, 왜 그랬나요? 그 여자는 “나는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 이제 신학교 교수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좋아, 이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내 구원을 좀 바꿔야 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표현을 바꾼다고 해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관찰해 보면,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인내는 바울의 인내를 보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인내는 바울의 인내를 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섹션 전체의 긍정적인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셨고, 그분 때문에 나도 신실합니다. 그런데 동기부여가 되는 믿을 만한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모데. 이론적인 가능성이지만 버튼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추방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냥 거기에 버티세요. 그리고 내 생각엔 그는 티모시가 그러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짓 교사들을 다루겠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것들을 계속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제 그는 디모데 자신에게서 디모데가 이끄는 사람들에게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경고한 것과 같이 디모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경고하라.

말로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십시오. 이것은 목사가 자신의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예이다. 그분은 가르치기도 하지만 훈계하기도 하십니다.

그는 목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투지 않도록 경고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고 듣는 사람을 망칠 뿐입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특정 토론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리고 그 단어는 열성적이거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세요.

저는 그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자신을 승인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십시오. 부끄러울 것이 없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뿐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잡담을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에 빠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불경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적어도 미국에서는 정치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많은지, 미래의 인류 구원은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인상을 문화가 어떻게 주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해결책이 있습니다.

의회가 만들거나 대통령이 만들 솔루션입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입니다. 정치는 삶과 죽음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과학적인 문제. 기후 문제. 질병 문제.

우리의 희망은 바로 CDC와 세계보건기구(WHO)가 부여한 보건 명령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 똑똑한 행성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먼저 성별을 파괴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대화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부분은 신이 없고 의도적으로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인 일부 사람들도 이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많이 읽어야 제 학생들에게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성경과 이 불경건한 잡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개종할 수 없으며, 그것에 너무 연루되어 단지 불경건한 잡담의 선교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경솔한 잡담에 빠져 다른 사람을 반박하려는 또 다른 화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에 빠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불경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일부 교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경건해졌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좌파이고, 정치적으로 우파이며, 인간에게 최종 해결책이 있다는 불경건한 견해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논의가 사라질 수 있다거나 그것이 규범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토론은 특정한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배에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헌신하라는 명령의 일환으로 이 일에 내가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돌보시도록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혼, 나의友情, 나의 교회에서의 일, 나의 매일의 묵상 생활, 나의 아이들과의 관계, 나의 일과의 관계 등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내 능력과 소명에 대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목회 지도자인 디모데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충실하도록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도록 하고,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않을 큰 토론에 빠지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에 너무 연루된다면 그것은 그들을 불경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괴저처럼 퍼질 것이며, 그 후에 그는 두 이름을 후메나오와 빌레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떠났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그들의 믿음을 모두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것을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사다가 그들의 믿음이 멸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견고히 섰고 그의 기록으로 인봉되었으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악에서 떠나야 할 것이라.

목회적 돌봄에는 잘못된 개념을 지속적으로 편향시키는 일이 포함되며, 때로는 저 두 사람처럼 그러한 생각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15절에 보면 신실한 목자는 자기 일을 잘 수행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작전에서 목사의 주요 무기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종이요 봉사자입니다. 그 사람은 선생님이다.

그는 이 하나님 말씀의 도구를 가지고 감독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신실한 목자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변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그는 그들을 옹호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빨리 붙잡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통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메내오와 빌레도, 그리고 그들의 견해와 지금까지 그들에게 붙어 있던 모든 운동과 같은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분리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2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다음 강의에서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멈추고 돌아오면 2시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목회 서신,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에 대해 강의하는 로버트 W. 야브로 박사(Dr. Robert W. Yarbrough)입니다. 9회, 디모데후서 2:1-21.